

# 벤츠 “전동화 혁신 선도한다”...순수전기차 5종 공개

### 서울모빌리티쇼 미래 청사진 제시 컴팩트 SUV 모델 ‘더 뉴 EQB’ 전기 세단 ‘더 뉴 EQS’ 국내 출시

메르세데스-벤츠가 새로운 순수 전기차 5종과 혁신기술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2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벤츠는 최근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동화를 선도하다”(Lead in Electric)를 주제로 순수 전기차 모델들을 공개했다. 우선 아시아 최초로 ‘더 뉴 EQE’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 (MATIC)+’, ‘컨셉 EQG’ (The Concept EQG) 등 3개 모델을 선보였고, 국내 최초로는 ‘더 뉴 EQS’와 ‘더 뉴 EQB’ 등 2개 모델을 새롭게 공개했다.

특히, 이전부터 국내 출시를 앞두고 많은 기대를 모았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시장에 공식 상륙했다.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메르세데스-EQ가 처음 선보인 더 뉴 EQS는 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차세대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하이퍼스크린이 최초로 적용되는 등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혁신

기술이 대거 적용된 게 특징이다.

외관은 하나의 활과 같은 원-보우(one-bow) 라인과 A-필러를 전진시키고 C-필러를 뒤에 위치하도록 한 캡-포워드(cab-forward) 패스트백 스타일로 내연기관과 차별을 뒀다.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구현해 양산차 중 가장 낮은 공기저항계수인 0.20Cd를 기록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 더 뉴 EQS는 최고 출력 245kW, 최대 토크 568Nm의 성능을 발휘하는 EQS 450+ AMG 라인 모델이 우선 출시된다. 더 뉴 EQS 450+ AMG 라인은 107.8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1회 충전 시 최대 478km 주행(환경부 기준)이 가능하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공개한 더 뉴 EQB는 메르세데스-EQ가 선보이는 두 번째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이다. 3열 시트를 추가해 7인승으로 확장할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온-오프로드에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패밀리 전기 컴팩트 SUV라고 벤츠는 전했다.

더 뉴 EQB의 실내는 2829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1열의 헤드룸은 1035mm로, 2열은 5인승 기준 979mm의 헤드룸과 87mm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다. 7인승으로 구성할 경우 3열에 2개의 시트를 추가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168kW 출력의 EQB 300 4매틱과 215kW 출력의 EQB 350 4매틱 두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공식 출시한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다. 66.5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1회 충전 시 유럽 WLTP 기준 419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밖에 벤츠는 아시아 최초로 ‘더 뉴 EQE’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 ‘컨셉 EQG’ 등도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는 더 뉴 EQS에 이어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두 번째 모델이다. 외관은 원-보우(one-bow

) 라인과 캡-포워드(cab-forward) 패스트백 스타일을 기반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실내는 3120mm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세대 E 클래스 모델보다 넉넉해졌다. 앞좌석 솔더룸은 27mm 확장됐고 실내 길이는 80mm 더 길어졌다. 또 최고출력 215kW, 최대토크 530Nm의 성능을 발휘하며, 배터리 용량은 90kWh로 완충 시 유럽 WLTP 기준 최대 660km를 주행할 수 있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은 메르세데스-AMG 브랜드가 선보이는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다. 고성능 드라이빙 퍼포먼스부터 스포티한 디자인, 감성적인 차량 사운드까지 AMG 브랜드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벤츠의 설명이다.

최고출력 484kW(658 hp), 최대토크 950Nm의 성능을 발휘하며, 배터리 충전량이 80% 이상일 경우 3.8초만에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 선택 사양인 AMG 다이내믹 플러스 패키지를 적용하면 부스트 기능이 제공되는 레이 스타트(RACE START) 모드에서 최고출력 560kW(761 hp), 최대토크 1020Nm의 향상된 성능을 경험할 수 있고,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3.4초로 단축된다.

컨셉 EQG는 럭셔리 오프로더 G 클래스의 전동화 버전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로, 각진 실루엣과 강인한 외부 보호 스트립, 전면의 원형 헤드라이트를 적용해 G 클래스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담았다.

차체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사다리형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새시에는 G 클래스 특유의 강인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각 바퀴에 장착된 4개의 전기 모터는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해 온-오프로드 각 상황에 맞춤형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전용 친환경 SUV 모델 ‘디 올 뉴 기아 니로’ 선보여

### 친환경 SUV 1세대 출시 5년만에 재활용 섬유 등 친환경 소재 적용

기아가 전용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디 올 뉴 기아 니로’를 처음 공개했다.

기아가 최근 공개한 신형 니로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기아의 비전이 담긴 전용 친환경 SUV 모델로 1세대 출시 이후 5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량이다.

신형 니로에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펜지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와 그 속성 중 하나인 이유있는 즐거운 경험(Joy for Reason)을 적용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우선 차량 외관은 간결한 디자인을 갖췄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으로 모험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전면은 기아 시그니처인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을 후드에서 펜더까지 확장시켰고,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LED DRL(주간주행등)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전기차 모델은 무광과 유광을 조합한 투톤 그릴에 육각형의 입체적 패턴을 적용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전면부 이미지를 연출하는 등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별을 뒀다.

특히 신형 니로에는 친환경 CMF(컬러·소재·마



기아의 전용 친환경 SUV 모델 ‘디 올 뉴 기아 니로’.

(기아 제공)

감) 적용을 통해 기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탑승객 시선이 많이 머물고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 환경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차량 전장(헤드라잉)에 재활용 섬유를, 도어 판넬에 수성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는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섬유를 활용했다.

이와 함께 내부에 관습적으로 적용됐던 검은색 색상을 벗어나 회색과 녹색 계열의 색상을 적용해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형 니로는 내년 1분기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전기차 모델도 출시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마세라티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 MC20 첫 하이브리드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공개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가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로 선정된 ‘MC20’(사진 오른쪽)과 브랜드 최초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르반떼 GT 하이브리드’(왼쪽)를 선보였다.



마세라티는 지난 25일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에서 MC20 모델을 공개했다. 최대토크 73.4kg·m, 제로백 2.9초, 최고속도 325km/h의 성능을 발휘하는 630마력의 신형 V6 3.0L 네투노(Nettuno) 엔진이 장착됐다. 마세라티 자체 기술로 개발된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전량 이탈리아 모데나(Modena)에서 만들어지는 V6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MC20의 공기역학을 담은 설계는 스타일을 고려한 상부와 기술적인 하부로 나뉘고, 검정색과 카본 파이버로 구성됐다. 국제자동차페스티벌에서 ‘2021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에 선정된 MC20의 가격은 3억9000만원이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는 마세라티 전동화의 미래가 투영된 마

세라티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 모델이다.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는 중량이 동급 6기통 엔진보다 가볍고, 전면에 탑재된 엔진과 후면에 탑재된 배터리로 중량 배분을 향상시키면서도 적재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게 특징이다.

최고출력 330마력과 2250rpm에서 발휘되는 45.9kg·m토크 등 ‘올 휠 드라이브’ 구동방식으로, 최고속도 245km/h, 제로백 6초, l당 마력(비출력) 165ps/l의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WLTP 사이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20-243g/km까지 줄이고 350마력 V6버전에 비해 연비를 18% 이상 절약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반떼 GT하이브리드 가격은 1억18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